

풍악을 울려라 북과 쇠와징과 장구를 쳐라... 절망속에서 희망이 솟네 승리의 나팔을 불어라. 열심히 축가를 열창한 님들, 아직 이 노랫말이 머리속에 맴돌고 있진 않으신지요~

멋지게 불렀던 가사, 그 느낌 그대로, 신나게 풍악을 울리며 매일매일 희망속에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8/24) 생일인 과재화 다미아노 형제님과 영명축일을 맞이하신 (네, 8/24일이 영명 축일이십니다~) 바르톨로메오 주임 신부 님께 특별한 축하를 드립니다.

## 8월 28일 복음 말씀 [(녹)연중 제22주일]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7-14

1 예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7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8 “누가 너를 훈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9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 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10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11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12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13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14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디오: [http://mobile.catholic.or.kr/web/missa/month\\_missa\\_content.asp](http://mobile.catholic.or.kr/web/missa/month_missa_content.asp)

## 8월 넷째주 공지 드립니다.

<지난행사>

8/21일 주일 행사:

지난 주일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사진과 동영상 링크 보내 드립니다.

사진: (연습) <https://flic.kr/s/aHskGYXVVi>, (행사당일 - 성가대, '축제' 축하공연, 설거지, 뒤풀이): <https://flic.kr/s/aHskGYZg9h>

하모니/드락회 축가 동영상: <http://oakcc.org/node/2656#.V7z9rrVrjOR> (클릭 후 밑으로 살짝 내리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쇼: <https://drive.google.com/file/d/0BwxtLA4h0ejlWGZBblkzU2JDTms/view>

**1. 전례봉사**에 수고해주신 권창모, 김현경, 이영재, 차아름 형제/자매님, 감사 합니다.

**2. 주임 신부님 영명축일 슬라이드쇼와 축가:** 영명축일 축가('축제')와 율동으로 분위기를 한층 밝고 즐겁게 만들어준 강보라, 문지영, 김현경, 김정호, 이영재, 차아름, 전진영, 그리고 뜨락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18명의 하모니+뜨락 멤버들이 함께 모여 준비하는 과정속에 서로 알게되며 좋은 추억 만드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무한 긍정속에 무한 반복으로 열심히 노래와 율동을 멋지게 소화해준 우리 하모니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어린 감동의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합니다~ 신부님도 이런경험 처음이라며 행복해 하셨답니다~ 또한 슬라이드쇼 준비에 도움을 준 홍상미, 김정호, 전진영, 특히 뜨락회의 문고운 형제/자매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3. 성가대:** 교종미사 성가대 피정으로인한 부재를 우리 하모니, 뜨락회 청년들이 멋지게 채웠습니다! 한 목소리로 정성껏 성가를 부른 님들, 감사합니다!

**4. 설거지:** 신부님 영명축일 점심 식사로 설거지 양이 진정 어마어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나게 서로 도와가며 마무리 정리와 설거지를 도운 허성운, 권창모, 강보라, 문지영, 김현경, 이영재, 차아름, 김정호, 전진영, 그리고 뜨락회 형제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즐겁게 손발 척척 맞춰 봉사한 님들의 모습이 최고 멋지고 아름 다웠습니다~

---

### 기타강습

매주 화요일 저녁 미사 (7:30) 후 초보자를 위한 기타 강습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9시

장소: 소망방, 기타 지참.

### 마르코 복음 가톨릭 성서모임

창세기와 탈출기 성서모임을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마르코** 복음 성서모임을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있을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 신청 바랍니다.

창세기와 탈출기 성서모임반도 모집 중이니 신청 해 주세요. 성서모임으로 성경말씀을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예비자 모집

예비자 교리가 9월부터 시작됩니다. 주위의 예비자 분들께 소개해 주세요. 예비자가 아니더라도 기초 교리를 다지고 싶은 분들도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영명축일 -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3일 안진영 로사

8월 24일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주임 신부님

### <리마인더>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립니다.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mailto:harmonycatholic@gmail.com)

**2016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박보라 율리아나 [917-817-8908](tel:917-817-8908)

김정호 이나시오 [510-299-2297](tel:510-299-2297)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tel:1-510-553-9434)

Web: [www.oakcc.org](http://www.oakcc.org)